

한국 전통건축공간의 퍼지성에 관한 연구

- 전통주거건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uzziness of the Korea's Traditional Architecture

이진길* 남해경** 박한규***
Lee, Jin-Gil Nam, Hae-kyung Park, Han-Kyu

Abstract

The fuzzy theory is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the 'subjectivity' and the 'ambiguity'. The paradigm of the fuzzy theory is to explore a regularity from the 'subjectivity' and the 'ambiguity'. Nowadays, the 'fuzziness', the main concept of the fuzzy theory, is widely applied to a lot of fields as the theory which is positively accepted and actively interpreted. In the science, the 'fuzziness' is officially called as 'multi-valence'. On the other side, there exists the other theory called 'Han-ism' which is presumed as a prototype of Korean philosophy.

The basic concept of the 'Han-ism' - one, many, middle, same, about - includes the 'fuzz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fol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uzzy theory and Han-ism, and furthermore, to interpretate the cultural phenomenon and architectural spaces in Korea's traditional architecture with a viewpoint, the 'fuzziness' of the 'Han-is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全) 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등 서구에서부터 일기 시작하여 현대 물리학의 성과를 근거로 전개되고 있는 신과학 운동(New Age Science) 지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넓은 기계주의적 세계관에 대체될 새로운 세계관인데, 그것은 바로 전일적(全一的) 세계관으로서 동양적 세계관과 같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한다.

지지자들 중의 한 사람인 프리츠프 카프라(Fritjof Capra) 또한 그의 저서 "The Turning Point"에서 지금의 문명이 당면한 위기 상황의 원인은 데카

르트-뉴우튼적 과학으로부터 발생된 기계론적, 요소 환원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 넓은 세계관에 대체되는 새로운 세계관은 전일적인 세계관으로서 동양의 신비 사상들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 그러한 이유로는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된 과학적 성과-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 상보성 원리, 홀로그래피 이론, 열역학 3단계, 혼돈 이론, 퍼지이론 등-들이 나타내는 지향 원리와 동양의 신비 사상들이 사용하는 어법(語法)이 유사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주장한다.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이제는 한국 전통주거건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동양적 사유의 한 줄기로서 토착적인 한국 전통적 사유²⁾를 통하여 한국성을 재해석하는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 전통주거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한국 전통적 사유를

* 정회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정회원, 대불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공간론의 형성이 미미한 까닭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 전통주거 속에 내재되어 온 전통적 사유를 밝혀 내어 체계적인 공간론을 구축하는 일이 한국 전통주거 건축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기저에 흐르는 전통적 사유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통주거 공간의 특성에 대해 재해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로써 본 연구가 올바른 전통 계승을 통한 현대 주거 건축 공간의 새로운 공간 개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공간 발생론적 측면의 해석에 주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건축이 형성된 사상적맥락 속에서 공간의 발생론적인 특성에 대하여 관찰,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다소 간접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건축 공간을 이루는 내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요하게 다루어 전통주거건축을 해석하는 기본 시각에 대한 이론적인 모색을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문헌적 연구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낱말의 건축적 실례(實例)들을 피했다. 또한 퍼지이론의 철학적, 인식론적 측면에 국한하여 수식에 대한 고찰이나 설명을 피하고, 주로 퍼지성(Fuzziness)에 대한 철학적, 인식론적 측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 특성 추출에 있어서 전통건축의 범위를 조선 후기 전통주택을 중심으로 선정한 이유는 답사가 가능하고, 연구 문헌이 비교적 풍부하며, 경제적, 지위적 여유로 인한 건축적 표현의 다양성 표출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는 가장 원형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곳이므로 공간 특성들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퍼지이론의 퍼지성을 고

찰하고,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한국전통사상으로서 한사상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한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의 기본 개념적 틀(무자성공간)을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을 정리하여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 특성을 추출하고, 전제된 무자성 공간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앞에서 추출한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 특성들의 기저에는 퍼지성(fuzziness)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퍼지이론에 대한 고찰

1. 퍼지이론(Fuzzy theory)의 의의(意義)

퍼지이론은 1960년대에 공학 분야에서 시작된 신과학 이론 중의 하나로서 과학에 있어서 주관적 척도를 도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된 이론이다. 퍼지이론은 퍼지성(fuzziness)³⁾에 관한 이론이며, 애매성에 대한 수학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퍼지 집합(fuzzy set)에서는 말의 의미를 정량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미의 애매성을 수치화해서 표시하는 것이다. 퍼지이론은 애매성(fuzziness)을 위한 이론으로서 애매성을 인정한 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치화해서 엄밀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퍼지집합에서는 애매한 그룹에 소속하는 멤버쉽에 그래이드를 부여해서 표시하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학의 주관화에 그 맥락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관성은 배제하고 객관성을 요구하는 과학 속에 주관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양을, 나가서는 주관성 그 자체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퍼지이론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고전 과학의 정신과는 차이가 뚜렷하다. 즉 고전 과학은 정확성, 확실성, 객관성에 그 이론적인 근거를 두었으나 퍼지이론은 모호성, 불확정성, 주관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전 과학적 태도에서는 객관적인 것만을 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주관적인 부분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태도를 취해 옴으로써 객관

적일 수 없는 많은 부분에 대한 소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더 이상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퍼지이론이 나타나기 전에는 'Yes' 아니면 'No'밖에 모르던 과학이 두 가지 외에 수많은 가치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 전에는 연구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던 애매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퍼지이론은 기존의 과학적 사고에서 배제된 애매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정당성 회복이라 할 수 있다.

2. 퍼지성(Fuzziness)

애매함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는 애매함이 항상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없이는 오히려 많은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애매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퍼지이론에서 주로 취급하는 애매성은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에 관한 애매성, 즉 의미에 대한 애매성인 퍼지니스(fuzziness)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⁴⁾ 퍼지성은 과학에서 다치성(multivalence)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진다. 퍼지성의 반대는, 각 물음에 대답하는 두 가지 길, 옳음 또는 틀림, 1 또는 2인 이치성(bivalence) 또는 이원성이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퍼지성은 자연의 원초적인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판단과 선택의 행태에 있어서도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퍼지성은 많은 한국 전통문화의 결과물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퍼지이론적인 시각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에서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운 애매 모호한 측면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러한 애매성들에 대해서 문화의 미분화 상태라던가 비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퍼지이론적 측면에서 조명해보면, 그것은 오히려 한국의 전

통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퍼지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애매성이라고 판단된다. 한국 전통 문화에 있어서 퍼지성은 언어적 측면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문화목록어(inventory)인 '한'이라는 어휘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이 퍼지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의 어휘적 애매성과 다양성을 그 철학적 개념으로 삼는 한사상의 5가지 기본 개념인 일(一), 다(多), 중(中), 동(同), 혹은(或) 중에서 혹은(或)은 가장 퍼지적인 개념으로서 '어림'이라 해석하고, '퍼지(fuzzy)'로 번역하며, 그 단어적인 예로서 '한 동안'을 들기도 한다.⁶⁾

또한 한국 전통주거건축을 퍼지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달한 퍼지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전통 주거 건축에 있어서 정의하기 어려운 애매한 공간성(사이공간성)과 애매한 공간사용(다용도성)은 많은 연구자들이 현상적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왜 그런 공간특성들이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리적 규명은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퍼지적인 전통적 사유로 전제한 한사상적 시각으로 기존에 언급되던 전통 주거의 공간 특성들을 재해석하여 그러한 공간 특성들의 기저에는 그러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의 퍼지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깔려 있음을 밝히고, 설정한 기본 공간 개념(무자성공간)을 통하여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 형성 원리를 검증함으로써 체계적인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론에 대한 실마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Ⅲ. 한국 전통적 사유의 퍼지성

1. 한사상의 배경 고찰

우리 나라를 가리켜 '한국'이라 부르고 사람들을 가리켜 '한겨레'라 말하며 쓰는 글을 '한글', 입은 옷은 '한복', 그들이 사는 집을 '한옥', 그들의 정신을 '한얼'이라 일컫는다. 이와 같이 '한'이

라는 글은 우리의 모든 면에 관계되어 있으며 국가, 민족, 사상, 생활 전반에 관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규정할 때 쓰이는 말이다. 김상일은 한국의 문명사에서 나타나는 문화목록어(inventory)로서는 ‘알’, ‘감’, ‘닥’, ‘뽕’, 그리고 “한”이 있고, 이러한 어휘들 속에 한국적 사유의 원형이 들어 있다고 하며, 이들 어휘들이 형성된 문명사적 배경과 철학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한국 철학의 시원적인 과제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목록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한’을 말하는데, 그 이유로서는 ‘한’은 다른 목록어의 의미적 내용을 축적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이란 어휘 속에는 대략 20여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크다(大), 동이다(東), 밝다(明, 鮮), 하나다(單一, 唯一), 통일하다(統一), 곧·뭇(大衆), 오랜·참음(久), 일체다·전체다(一切), 처음이다(始初), 한겨레(韓民族), 희다(白), 바르다(正), 높다(高), 같다(同一), 많다(多), 하늘(天), 길다(長), 으뜸이다(元), 위다(上), 임금(王), 온전하다(全), 포용하다(包容).”⁷⁾

이러한 한국 전통적 문화목록어 ‘한’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애매 모호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얼마’, ‘대략’, ‘대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한 십분’, ‘한 두어개’, ‘한 오 리’ 등과 같은 경우엔 그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퍼지논리로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은 오랜 한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종합, 통전, 조화 개념으로 발전되어 내려와 유교, 불교, 도교 등에 내재해 있는 모순을 해결해 온 한국 고유의 기저 사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학적 개념이 퍼지적이며, 한국 전통사유의 하나인 한사상은 한국전통적 고유사상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 전통건축공간의 특성을 재해석하고, 퍼지성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한사상의 기본 개념

모든 철학적 문제성은 일(一)과 다(多)의 관계

설정에 그 궁극적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一)과 다(多)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서양 철학은 이원론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양 철학의 한계는 일(一)과 다(多)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치우침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사상에 있어서 일(一)과 다(多)의 관계 설정은 극단적이지 않으며, 어느 한 쪽에서 시작되고 끝나지 않는 비시원적이고 퍼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일(一)과 다(多)의 어느 한 쪽에도 근원을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흑과 백, 0 과 1, Yes 와 No 사이의 중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은 고유명사이자 동시에 보통명사이며, ‘한’에는 보통명사로서 5가지의 기본 개념인 일(一), 다(多), 중(中), 동(同), 흑(或)의 대표적인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의미 해석

- (1) 일(一) : 하나, 전체
[다(多)와 상대적인 쌍을 이루는 개념]
- (2) 다(多) : 여럿, 부분
[일(一)과 상대적인 쌍을 이루는 개념]
- (3) 중(中) : 적당함, 가운데
[수학적 1/2 이 아닌中庸(中庸), 중심(中心) 혹은 중간 값]
- (4) 동(同) : 같음, 동질성
[비중(比重)의 동(同), 성질(性質)의 동(同)]
- (5) 흑(或) : 어떤
[불확정성(不確定性), 퍼지성(fuzziness)]

2) 관계 해석

- (1) 일(一) 과 다(多)
: 모든 철학적 문제의 궁극점.
: 하나의 짝을 이루는 상대(음양, 양극).
- (2) 일(一)-다(多)와 중(中)
: 양 극단의 가운데 지점.

: 상대적인 것들이 중화(中和)되어 만들어진 제 3의 극(極).

: 최적의 상황.

: 중간(中)의 최적값.

(3) 일(一)·다(多)와 동(同)

: 다(多)가 일(一)일 수 있는 근거.

: 다(多)를 이루는 개체들 간에 통하는 어떤 동질성(同).

: 일(一)과 다(多) 사이에서 중(中)을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

(4) 일(一)·다(多)와 혹(或)

: 일(一)이 다(多)일 수 있는 근거.

: 일(一)은 일(一)이되 일(一)을 이루는 다(多)의 개체들 간에 있는 어떤 퍼지적 개체성.

: 일(一)과 다(多), 그리고 중(中)의 3극(極)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비시원성의 조건

: 이치성(二值性)과 삼치성(三值性)을 극복하는 다치성(多值性)

(5) 중(中)과 동(同)과 혹(或)

: 일(一)과 다(多)가 중(中)으로 통일, 다양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동(同)과 혹(或)의 퍼지적 개념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사상에 따르면, 일(一)과 다(多)는 모든 철학적 문제의 궁극적 극점이고, 그 일(一)과 다(多)를 관계시키는 관계어로서 중(中)과 동(同)이 있으며, 그 관계의 결과로서 혹(或)이 있다. 즉 일(一)과 다(多)를 가운데(中)로 같게(同)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일(一)과 다(多)를 중(中)과 동(同)으로 관계시킬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혹(或)이다. 일(一)과 다(多)를 “같게” 혹은 그 “가운데”로 조화시킬 때에 나타나는 결과의 현상적 성격에 있어서 상황은 비결정적 혹은 불확정적이고, 퍼지적이라 할 수 있다.

IV. 한국 전통주거건축 공간의 퍼지성

한국 전통 주거 건축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그러한 건축이 가능할 수 있었

던 그 시대의 원형적인 사유에 대해 논의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건축 철학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간 개념과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이란 공간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전통 건축의 방이나 마루, 마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으나, 대개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관찰자적인 견해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 전통주거 공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미진하게 남아 있으며, 그 현대적 계승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역측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먼저 한국 전통주거건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공간 특성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잘 알려진 공간 특성으로서 비대칭적 균형⁸⁾, 자연과의 유기적인 조화, 위계성 등이 언급되고 있고, 과정적 공간과 매개 공간 등이 논의 되어왔다. 주남철에 의하면, 동(棟)과 간(間)의 분화로서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는 것, 남녀 공간을 구분하여 분화한 것, 신분에 따른 공간의 계급성의 분재(分在), 전체 공간을 이루는 각 공간들이 갖는 하나의 연속성, 공간의 위계성,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교차 반복⁹⁾ 등에 대해서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특성들로써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밖에도 기타 공간적 특성 또는 건축물의 기타 다른 측면을 다룬 특성들에 대한 언급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국 전통 주거 건축 공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기존 연구에 관한 정리 작업은 차후 보충 연구로서 재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언급된 공간 특성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특성들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공간 개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퍼지적인 기본공간 개념으로서 무자성적(無自性的) 공간성¹⁰⁾을 설정하여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특성들에 내재된 퍼지적

특성에 대해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1. 무자성적(無自性的) 공간성

‘무자성적(無自性的) 공간성’이란 하나의 공간이 그 공간 자체의 정해진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의 성격은 주변의 다른 공간들과의 관계에 의해 성격지어지며,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 더욱 명확한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퍼지성을 가진 공간 개념을 말한다. 건축에 있어서 한 공간의 성격을 기본적 속성과 부가적 속성¹¹⁾으로 방편 상 나누었을 때, 무자성적 공간이란 그 공간의 부가적 속성이 불확정성, 퍼지성을 갖는 공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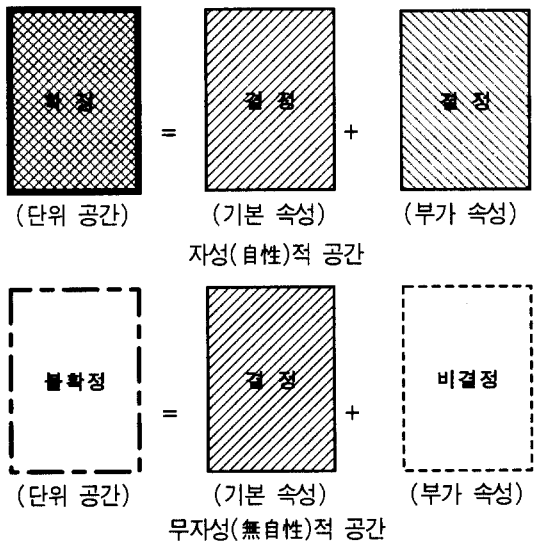


그림 1. 무자성 공간과 자성 공간의 비교 도식

기존의 연구 중에서 무자성 공간에 대한 유사한 언급을 살펴보면, 김봉렬은 한국의 건축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 건축에서 건물이란 하나의 방과 같이 무성격한 구성 단위이며, 부분적인 요소일 뿐이다¹²⁾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마당과 방은 극도로 단순화되어 근본된 성질만을 강렬하게 드러낸다. 방의 골격은 거주하기 위한 내부 공간이라는 점만을 표

상하는 단순 Box로 드러나며, 마당 또한 외부 공간이라는 근본적 성질 외에 다른 특별한 치장을 하지 않는다.¹³⁾ 따라서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 각 공간의 성격을 별달리 규정 할 수가 없게 된다. 때문에 방의 공간적 특성은 마당으로부터 받고 마당의 공간적 특성은 방이나 담으로부터 받음으로서 각 공간은 비로소 완전한 공간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국 전통건축 공간들은 각각의 의미에 충실하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의 비서원적이고 퍼지적인 관계를 위해 무자성적 공간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자성적 공간성에 의해 과정적 공간성을 갖게 되며, 사이 공간성, 다용도성 등의 공간 특성들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과정적 공간성은 무자성적인 공간성으로 인하여 단위 공간이 그 자체의 공간으로 완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공간 사이에 과정적인 공간성을 띤 정적 공간을 두게 되고, 그러한 이유로써 전체 공간은 켜를 갖게 되어 건축적 체험에 있어서 깊이 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이나 마루 마당 등 각 단위 공간은 그 공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골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늘 비워져 있는 상태이기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담길 수 있는 탄력(퍼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나 실외 사용의 연장 등의 성질도 늘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확정적인 성질이 아니어서 상황 발생에 따라 적절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적인 공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무자성적인 특성의 기본적인 구조로서 하나의 단위 공간은 그 공간의 상황적 성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속성이 결합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본적인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 그 상황이 공간에서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작용하는 ‘부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의

속성으로 나눈 것은 단위 공간 구조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방편 상의 문제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러한 해석의 틀을 전제하는 목적은 한국 전통 공간의 성격을 발생론적 측면에서부터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현대적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에서는 무자성적 공간성을 이루기 위한 공간 구조인 기본적 속성과 부가적 속성의 결합이라는 기본 구조를 해석의 틀로써 검토하고자 한다.

1) 기본적 속성

한국 전통건축 공간구성 방식은 의미를 가지고 터를 나누고 채(陳)를 분리하며, 간(間)을 구성하는 분할법적인 공간구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를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이미 설정된 의미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 중 시초적 단계이다. 의미의 분류가 명확할 때 결과물도 명확해지고, 의미의 분류가 모호할 때 그 결과물도 모호해진다.¹⁴⁾ 이렇게 각 단위 공간은 이미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단위 공간의 구성이 이루어지므로 그 의미가 건축적으로 충실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공간의 속성을 '기본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의미'란 '기준'이라 말할 수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분할법적으로 공간구성을 한다는 것은 각 단위 공간의 개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개체성의 부여'란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완전한 부분의 제공·부분의 충실화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단위 공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란 이러한 공간구성 방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필연이라 할 수 있다. 마당은 외부 공간으로서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으며, 땅 그 자체를 그대로 놓아둔다. 또한 내부 공간인 방은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바닥과 천장, 기둥, 그리고 벽체 뿐 극도로 단순화된 골격만을 갖는다. 이것은 외부 공간인 마당의 기본적인 속성과 내부 공간인 방의 기본적인 속성의 충실화이고, 의미의 충실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전통 건축 각각의 단위 공간은 그 기본적인 속성만 가

진 채 성격이 완결되지 않은 퍼지적이며, 무자성적인 공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상황적 속성

한국 전통 주거 건축이 분할법적 공간구성으로 인하여 무자성적 공간성을 갖게 되고 각 단위 공간은 의미의 충실화를 위해 개체성을 단순화하여 그 근본된 성질만을 강하게 드러내게 됨으로서 기본적인 속성을 명확히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주거를 이루기 위해 구성되는 과정에서 각 공간의 기본적인 속성에 부가적인 속성이 상황에 따라 첨가됨으로서 주거로서의 완전한 의미와 기능을 갖게 된다. 여기서 '상황적 속성'이란 '퍼지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상황적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어떤 주관적인 상황으로 공간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적 속성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과 결합하여 결정되는 그 공간의 성격은 퍼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분의 충실화가 전체의 완전함을 위해 전제가 되는 것과 같이 무자성적인 공간성을 갖는 공간은 기본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상황에 따라 첨가되는 퍼지적인 상황적 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당이나 방은 그 기본적 속성을 강하게 갖고 있되 서로가 대조적인 성질만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상황에 부가되는 부가적 속성(상황적 속성)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공간적 특성의 완결을 주고 받는 것이다. 따라서 마당과 방 사이에는 각 단위 공간의 강한 기본적 속성을 연결시켜 주고 매개시켜 주는 사이공간이 존재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대청마루나 툇마루 등이 담당하여 각 단위 공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거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분할법적 공간 구성상 나누어진 각각의 공간은 기본적 속성만을 명확히 가지며, 부가적 속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즉, 공간의 자체 성격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고, 정의될

수 없는 퍼지적 상황 속에서 주변에 놓여지는 공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자성적 공간성으로 인하여 과정적 공간성을 갖게 되며, 사이공간으로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부가적 속성에 의해 상황에 따라 용도가 바뀔 수 있는 다용도적인 공간성을 갖게 된다.

2. 사이 공간성

한국 전통 건축 공간 특성으로서 사이공간이라는 특성은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특성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이공간에 대한 언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영배는 매체공간(intermediate space)이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공간 사이에서 공간끼리 서로 연결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 또는 건축 공간과 주변의 자연 공간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는데 매체(媒體)가 되는 공간을 말한다¹⁶⁾고 하며, 또한 매체(媒體) 공간이라고 하면 단순히 좁고 긴 공간만을 연상하게 되고 과정적 공간과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게 보이나 이것은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주요한 공간 속의 일부로서 융합되어 있으면서 단조롭기 쉬운 주요 공간에 유연한 탄력을 부여하면서 공간의 유기적 결합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¹⁷⁾ 말한다. 또한 김란기는 매개 공간과 회색 공간이란 일련의 공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 공간은 이들 공간과 공간을 중개하는 공간,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 혹은 단지 소통을 의미하며, 매개 혹은 회색은 중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 전통주거 공간에서는 매개 공간이란 마당, 대청 등으로 파악되며, 회색 공간은 누마루, 뒷마루 등을 들 수 있다. 이 공간들의 특성은 완전한 내부 공간의 기능이나 완전한 외부 공간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내, 외의 어느 한 쪽 혹은 어느 쪽도 아닌 중간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즉, 첨가 공간으로 이미 분석된 누마루와 뒷마루는 완전한 공간적

기능을 갖추지 않고 공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대부분 매개의 기능을 한다. 또한 마당, 대청 등의 공간 역시 내부 혹은 외부의 공간으로 간주하기에는 상대적인 면이 많아 그 중간적 공간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⁸⁾

이와 같이 사이공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언급은 특정한 단위 공간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전통 주거건축 공간이 무자성적인 공간성이라는 공간 개념을 기초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공간의 성격 결정에 기본적인 속성과 부가적인 속성의 결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단위 공간은 상황에 따라 사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부가되면 사이공간으로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한국 전통 건축 모든 단위 공간에 사이 공간적인 특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넓게 보면 전통 건축의 모든 단위 공간이 다른 공간과 공간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간적 성격(의미)외에 부가적인 성질로서 매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한국 전통주거의 퍼지적 특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고 판단된다.

3. 다용도적(多用途的) 공간성

다용도적 공간성은 한국 전통 주거 건축에서 두드러지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으로서 흑(或)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공간 특성이다. 한국 전통 주거에서 하나의 공간(一)은 다양한 용도(多)를 가지게 되는데, 부가적 속성(或)이 불확정적이므로 상황에 따라 기본적 속성(同)의 범주 내에서 적절히(中) 그 용도가 결정되어진다. 건축물에 있어서 공간의 쓰임은 이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세계관)에 따라 어느 정도 전용(轉用)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전용성(다용도적 공간성)은 한국 사람들 특유의 정서인 예누리, 즉 비시원적인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한민족

의 퍼지적인 정서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퍼지적 공간 사용에 따라서 가구 및 가재도구들의 기능이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 특성으로 발달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책상과 밥상, 촛대, 보자기, 이부자리, 요강 등이 그러한 가재도구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전통 주거에서 사용되어지는 가재도구들과 가구의 다용도적 특성은 한국 현대 주거에서도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한민족의 퍼지적 정서와 전통주거 공간의 퍼지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용도성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용도적 공간성은 한사상적 세계관의 혹(或, fuzziness)의 개념에서 출발된 것으로서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 특성 중 가장 퍼지적인 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고유의 세계관이 한국 전통 주거 건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올바른 전통 계승의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기저 사상으로 설정한 한사상적 세계관은 퍼지이론의 퍼지성에 대한 철학적 근거와 일맥상통함으로서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기류인 신과학운동의 지향성과도 상통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전통 건축 공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현대 건축적인 어휘로 전환시켜야 정확하고 올바른 전통 계승을 이룸과 동시에 한국 전통주거가 갖는 특질 중의 하나인 인간과 자연에 밀착된 건축적 접근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V. 결 론

주

지금까지 한사상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무자성 공간이라는 틀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주거 건축의 공간 특성과 퍼지이론의 퍼지성(fuzziness)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았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퍼지 이론의 퍼지성은 동양적 사유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며, 특히,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2) 한사상은 민족 고유의 기저 사상으로서 현대 과학 이론의 하나인 퍼지이론의 퍼지성과 그 철학적인 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기존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어진 사이 공간성, 다용도적 공간성 등의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 특성들은 한사상적 세계관(一, 中, 多, 或, 同의 개념)에 의한 퍼지적인 사고 방식에 그 근본 바탕을 둔 건축적 사유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한사상적 세계관(一, 中, 多, 或, 同의 개념)은 퍼지적인 한국 전통주거건축의 공간 특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관점임을 알 수 있었다.

- 1) F.Capra이성범·구윤서(1991),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12쇄, 서울;범양사출판부, pp.17-20.
- 2) '동양적 사유'라 함은 보편적으로 '중국적 사유'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儒), 불(佛), 선(禪) 등의 사유 역시 외래적 사유로서 보며, '한국전통철학'이란 그 출발과 기원이 한국의 시원적(始原的) 역사에 근거한 토착적인 사상들을 일컫는다.
- 3) 이하 "애매성"과 동의어로 혼용함.
- 4) 向殿政男\전자신문 출판사업국(1991), 알기쉬운 퍼지이론, 초판, 서울;전자신문사, p.36.
- 5) 바트 코스코공성곤·이호연(1996), 퍼지식 사고, 1판3쇄, 서울;김영사, p.44.
- 6) 김상일·이성은(1995), 퍼지미·퍼지철학·퍼지인간관리, 초판, 서울;전자신문사, pp.127-128.
- 7) 안호상(1977), 국민윤리학, 초판, 서울;배영출판사, pp.147-150.
- 8) 주남철(1978),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특성론, 대한건축학회지, 22권80호, p.17.
- 9) 주남철(1978), 상계서, pp.17-23.
- 10) '자성(自性): 본래부터 갖추어 있는 진성(眞

性), 본래의 성질'에서 '자성을 갖지 않은', '미리 정해진 성질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 차용함

- 11) 이후 "상황적 속성"과 동의어로 혼용함
- 12) 김봉렬(1999), 이땅에 새겨진 정신, 1판 1쇄, 서울:이상건축, p.13.
- 13) 이원교(1986), 사대부가의 공간도식적 특성, 8월호, 서울;건축과 환경, p.48.
- 14) 이 원교(1986), 전계서, p.45.
- 15) 이 원교(1986), 전계서, p.46.
- 16) 안영배(1998), 한국 건축의 외부 공간, 5판 3쇄, 서울;보진재, p.42.
- 17) 안영배(1998), 전계서, p.42.
- 18) 김란기(1985), 한국 전통 건축 기호론 적용에 관한 시론, 10월호, 서울;건축과 환경, p.51.

참 고 문 헌

1. 김봉렬(1999), 한국 건축의 재발견 3, 1판1쇄, 서울; 이상건축.
2. 김상일(1995), 퍼지와 한국문화, 재판, 서울; 전자신문사.
3. 김상일 · 이성은(1995), 퍼지미 · 퍼지철학 · 퍼지인간관리, 초판, 서울;전자신문사.
4. 김상일(1986), 한사상, 초판, 서울;은누리.
5. 김상일(1991), 현대 물리학과 한사상, 초판 3쇄, 서울;고려원.
6. 김용옥(1991),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중판, 서울;통나무.
7. 박경립(1986), 전일적 세계관으로 본 한국 전통 건축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8. 신과학연구회(1996), 신과학운동, 7쇄, 서울;범양사.
9. 이광형 · 오길록(1997), 퍼지이론 및 응용 I권, 개정판, 서울;홍릉과학출판사.
10. 이원교(1986), 사대부가의 공간도식적 특성, 10월호, 서울;건축과환경.
11. 주남철(1983), 한국의 건축미, 서울;일지사.
12. 퍼지기술연구회(1992), 퍼지이론 해설, 초판, 서울;기전연구사.
13. Bart Kosko\공성곤 · 이호연(1996), 퍼지식 사고, 1판3쇄, 서울;김영사.
14. F.카프라이성범 · 구윤서(1985), 12쇄,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12쇄, 서울;범양사.
15. 向殿政男\전자신문 출판사업국(1991), 알기쉬운 퍼지이론, 초판, 서울;전자신문사.